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강 지 혜
(아주대)

인용문은 말 안에 존재하는 말이며, 발화 안에 존재하는 발화이고, 동시에 말에 관한 말이며, 발화에 관한 발화이다(Reported speech is speech within speech, utterance within utterance, and at the same time also speech about speech, utterance about utterance.).

(Voloshinov 115)

1. 서론

뉴스텍스트의 인용문은 한 텍스트 안에 선행 발화와 현재의 발화가 혼재되어 있음을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도구이다. 뉴스텍스트가 주로 “말에 대한 말(talk about talk)”(Bell 60)로 구성된다고 보더라도, 뉴스 보도에서 직접 인용

* 본 연구는 2006년 아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문만큼 인용 대상이 직접 독자들에게 말하는 듯한 사실적 생동감을 주면서도 말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제는 없을 것이다. 벨에 의하면 직접 인용문이 뉴스텍스트에서 수행하는 담화기능은 첫째, 직접인용이 되는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incontrovertible fact)”임을 보여주고 둘째, 인용되는 내용이 보도하는 기자/언론사와는 “관계없음(disowning)”을 밝혀주며 셋째, 인용 대상의 생생하고 함축적인 언어 사용을 옮겨줌으로써 더욱 생동감 넘치고 흥미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Bell 207-9).¹⁾ 그러나 직접 인용문의 세 기능 중 무엇보다도 첫번째 기능, 즉 원화자의 말이나 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자들은 직접 인용문을 언론 보도의 핵심적인 사실성 입증 기제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van Dijk 86).²⁾

이처럼 독자들에게 기사 내용의 사실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직접 인용문은, 엄밀히 말해 “보도되는 사건(reported event)”과 “보도하는 사건(reporting event)”이라는 별개의 소통 사건을 전제로 한다. 원화자의 발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보도되는 사건”에서는 발화의 내용과 형식이 당연히 당시의 소통 상황과 목적, 소통의 참여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보도하는 사건”에서는 기자가 원화자의 발화를 특정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기사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기사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다시 제시하게 된다. 각각의 소통 사건에서 텍스트 생산의 주체, 소통의 목적, 맥락 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에 아무리 직접 인용문이 “본래의 언어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Comrie 270, 이필영 13)이라 할지라도, 이는 결국 기존의 텍스트가 새로운 소통 상황에 맞는 텍스트로 다시 탄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 인용을 이해한다면 인용은 번역과 매우 유사하다.³⁾

- 1) 반 다이크도 직접 인용문이 기사의 공신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이나 명예훼손의 위험을 피하게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van Dijk 86).
- 2) 반 다이크는 사실성 입증 기제로 직접 인용문 이외에 숫자와 직접 관찰이 자주 사용된다고 말한다(van Dijk 85-86).
- 3) 본고에서는 인용의 문제를 번역의 관점에서 고찰하지만, 인용 현상은 여러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소설과 같은 문학 장르를 중심으로 한 문체론적 관점(Banfield 1973, McHale 1978, Leech and Short 1981, Fludernik 1993), 철학적 관점(Clark and Gerrig

두 현상 모두 원발화/원천텍스트와 “동일”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존재하는 듯하지만, “동일함”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기존의 텍스트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두고 누군가에 의해 재생되고 전달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주체가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 새로운 상황에 맞는 텍스트를 제시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 인용문의 경우 다른 이의 말이 큰따옴표 사용 등의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번역은 일반적으로 선행 발화가 언어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언어로 전달되기에 언어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결합된 선행 발화가 원래의 소통 상황으로부터 고립, 분리되어 새로운 독자들과 새로운 소통 목적을 위해 “재맥락화”(Slembrouck 95, Baker 330)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두 현상은 매우 유사하다.

번역과 인용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재맥락화라는 특징 때문에 슬렘브룩은 “직접인용은 번역 관행의 한 유형이고, 번역은 담화 표상(discourse representation)의 한 유형”(Slembrouck 96)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인용은 언어 내적 재맥락화이고, 번역은 상이한 언어 간에 일어나는 재맥락화지만, 몇 개의 언어가 관련되었는가의 문제에 상관없이 두 현상 모두 과정과 기제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하다는 것이다.⁴⁾ 번역과 직접 인용 모두 누군가가 산출한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재맥락화에는 필연적으로 “의미의 선택과 (재)구성”(Slembrouck 96)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한다. 이는, 기존의 텍스트가 재맥락화의 주체에 의해 특정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기에 기존 텍스트 의미의 특정 영역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기존의 텍스트에 비해

1990), 응용언어학적 관점(Thompson 1996, Buttny 1997, Baynham and Slembrouck 1999, Myers 1999), 대화분석적 관점(Holt 1999), 심리학적 관점(Ravotas and Berkenkotter 1998) 등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4) 필자가 이는 범위 내에서 번역과 직접인용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번역학자는 슬렘브룩 이외에도 구트와 모섭이 있다. 연관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근거하여 번역을 기술한 구트는, 번역을 통한 소통이 언어의 “해석적 이용(interpretive use)”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인용과 유사하며, 특히 “직접 번역(direct translation)”의 경우에는 직접 인용과 매우 유사한 기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Gutt 132-6). 또한 모섭은 “표준 형태 중심의 번역(standard-form translation)”은 직접 인용과 유사한 반면, 자유로운 번역은 간접 인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Mossop 9-18).

“다르지만 동일한 표현방식(different but equivalent means of expression)” (Slembrouck 96)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뉴스의 직접 인용문이 번역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인용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전환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비엘사와 베스넷(Bielsa and Bassnet)의 연구를 비롯하여 뉴스 번역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뉴스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직접 인용문의 번역 문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직접 인용문은 아무리 축자적으로 번역된다 할지라도 선행 발화에 사용된 원래의 표현이 “그대로” 번역텍스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번역된 직접 인용문은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직접 인용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Mossop 20). 그러나 번역된 외신 기사들을 매일 대하는 독자들은 뉴스를 읽을 때마다 직접 인용문이 원문기사에 보도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고는 구체적인 뉴스텍스트 자료를 근거로 직접 인용문의 번역 양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인용문과 뉴스텍스트의 번역

모든 텍스트는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의 일부이고 그 어떤 텍스트도 전적으로 독창적이지 않고 다른 여러 텍스트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은 바흐친으로서 그는 모든 텍스트가 사실상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거나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Bakhtin 279). 특히 바흐친은 “이어성(異語性, heteroglossia)”의 개

5) 뉴스 번역의 문제는 번역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뉴스번역이 게이트키퍼(gatekeeping) 기능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부터 뉴스번역이 자기검열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뉴스번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새로운 목적과 독자들을 위해 뉴스텍스트의 내용과 의미가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관심을 둔다(Fujii 35, Barnard 289). 특히 뉴스보도의 구성주의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뉴스텍스트의 번역을 재맥락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석들은, 번역텍스트가 가지는 의미생성 가능성이 어떤 주체(들)에 의해, 어떤 목적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독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연구한다(Kang 223, Baker 335).

념을 토대로 특정 언어 표현은 발화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면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263). 바호친은 주로 소설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만, 이어성의 개념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가 각기 다른 “목소리(voice)”를 혼합하여 일관성 있는 전체로 엮어낸다는 주장은 뉴스텍스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르에도 적용된다(357-8). 여기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특정 발화의 정체성을 드러냄을 의미한다. 즉 발화에 사용된 어휘, 통사 구조, 수사적 장치, 문체 등은 발화의 주체가 가진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 주며, 소통의 참여자들은 이를 인식함으로써 소통을 한다는 것이다(Wortham and Locher 559). 텍스트 생산자가 자신의 관점을 다른 목소리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용문을 사용한다는 바호친의 주장은, 특히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접근법을 토대로 다양한 언론텍스트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페어클러프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페어클러프는 “명시적 상호텍스트성(manifest intertextuality)”(Fairclough 104)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하나의 텍스트가 여러 텍스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논의한다. 하나의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표지되어 텍스트들 간의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명시적 상호텍스트성인데, 직접 인용문은 이러한 명시적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⁶⁾

기존의 논의에서는 선행발화를 ‘형식’ 그대로 가져오면 직접 인용으로, 인용자가 해석하여 ‘내용’ 중심으로 가져오면 간접 인용으로 간주했다. 다음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 (ㄱ)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며 “앞으로의 인생은 관념적 학문 연구보다 실천적 연구와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⁷⁾

6) 페어클러프는 상호텍스트성을 크게 “명시적 상호텍스트성(manifest intertextuality)”과 “구성적 상호텍스트성(constitutive intertextuality)”으로 구분한다(Fairclough 104). 전자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표지됨으로써 텍스트 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경우이고, 후자는 특정 텍스트의 양식이나 구성방식을 다른 텍스트에서 재현함으로써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7) 현행 맞춤법 통일안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을 인용할 때 마침표를 찍어

(ㄴ)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위의 두 예문은 뉴스텍스트에서 실제로 사용된 인용문으로서 (1ㄱ)은 직접 인용문이고 (1ㄴ)은 간접 인용문이다. 두 유형의 인용문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접 인용문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인용하는 텍스트를 큰따옴표 안에 넣음으로써 기자의 목소리와 인용 대상의 목소리 간의 경계를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기사의 직접 인용문에서는 청자 대우법 어미가 중화된다. 남기심(225)은 올바른 직접 인용문에서는 청자 대우법 어미가 중화되지 않고 원래의 발화 상태 그대로 대우법이 인용문에 유지된다고 말하지만(예, 그가 “이것은 강철입니다.” 하고 말했다.), 실제로 뉴스텍스트가 작성되는 방식을 보면 인용되는 문장의 중지법 어미에서 상대존대법이 중화된다(이창덕 267).⁸⁾ 셋째, 기사의 직접 인용문에서는 직접 인용 표지인 “라고,” “라며”를 사용하는 대신 “-고,” “-며,” “-는” 등의 간접 인용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정남(289)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경계가 허물어진 인용 표지, 즉 “중화된 표지”가 뉴스텍스트에서는 자주 쓰인다고 지적한다. 넷째, 직접 인용문이 “이다”로 나타나는 명사문일 경우 서술격조사 “이다”는 인용 표지가 융합되어(“-이라고”) 큰따옴표 밖으로 나가고, 큰따옴표 내의 인용문은 서술어 없이 명사로 끝나는 간결함을 보여준다(예, 대변인은 “내용을 더 알아보고 문제가 있는 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뉴스텍스트에 등장하는 많은 인용문들이 (1ㄱ)과 같이 마침표 없이 작성되고 있다.

- 8) 남기심은 직접 인용문의 특징으로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등 직접 화법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문장을 따옴표 안에 넣어 제시하고, 인용 표지(“라고,” “하고”)와 인용 동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양명희(2)를 비롯하여 규범주의적인 관점에서 직접 인용문을 논의하는 일부 학자들은, 마침표를 포함한 모든 문장종결부호를 큰따옴표 안에 넣어야 하고, 인용 표지도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나 “하고”를 사용해야 하며, 간접 인용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정남은 신문기사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지적한다(278). 본고에서는 뉴스텍스트의 직접 인용문이 사용되고 번역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목표이며, 따라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직접 인용문의 형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밝혀둔다.

라고 말했다.)⁹⁾ 이상의 논의를 통해 뉴스텍스트에 사용되는 직접 인용문의 형식적 특징은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의 혼용”(이창덕 267)과 간결성 추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 인용문과 간접인용문 중심의 구분법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많은 학자들이 “중간 변이형”을 포함한 구분법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 바 있다(cf. Leech and Short 322, Fairclough 49, 이창덕 259).¹⁰⁾ 특히 뉴스텍스트의 인용문을 연구한 리처드슨은 인용문을 크게 네 가지 유형, 즉 직접 인용문, 간접 인용문, 전략적 인용문(strategic quotation), 변형 간접 인용문(transformed indirect quotation)으로 구분한다(Richardson 102-4).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 (ㄱ) In the interview Wednesday, Richardson acknowledged he was "very close to endorsing" Clinton, but decided not to after the campaign got "nasty."

(ㄴ) Mr Bush said: "Yet democracies have certain things in common; they have a rule of law,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a free press and a viable political opposition."

9)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정남은 직접 인용문이 원화자의 발화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직접 인용은 원화자가 “바로 이런 어투로 이런 문장 형식을 써서” 말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김정남 287).

10) 리치와 쇼트의 구분법을 토대로 페어클러프는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 이외에 “자유 간접 인용문(free indirect reporting)”과 “화행에 대한 서사적 인용문(narrative report of speech act)”에 대해 논의한다(Fairclough 49).

- (a) Mary gazed out the window. He would be there now. She smiled to herself.
- (b) She made a prediction.

(a)의 “He would be there now”는 “자유 간접 인용문”인데, 이는 직접 인용문과 매우 유사하지만 상위문과 큰따옴표가 없고, 시제와 직시어(deixis) 사용에 있어서는 간접인용문 형식을 따른다는 특징을 지닌다. (b)는 “화행에 대한 서사적 인용문”으로 인용 대상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화행 중심으로 인용자가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ㄷ) Mr Bush wants greater commitment from Russia to the rule of law and freedom of the press as well as support for democracy across the ex-Soviet states.

(2ㄱ)에서는 원화자의 발화에서 문장 전체가 아닌 문장의 한 부분만을 직접 인용(partial quoting)하고 있는데, 리처드슨은 이를 “전략적 인용문”이라 일컫는다. 이때 인용 대상이 되는 표현은 흔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도자는 이를 큰따옴표 안에 넣어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들의 기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인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없음을 밝히고 있다. (2ㄴ)과 (2ㄷ)은 리처드슨에서 가져온 예문들로, (2ㄴ)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인용문이 변형되면 (2ㄷ)과 같은 “변형 간접 인용문”이 된다. (2ㄴ)과 (2ㄷ)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데, (2ㄷ)의 변형간접인용문은 (2ㄴ)에 비해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전달동사 대신 타동성(transitivity)이 높은 행위동사(예, discovered, revealed)나 인식 동사(예, believe)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¹¹⁾ 이처럼 인용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에 표현될 수 있다.

뉴스텍스트의 작성에는 흔히 텍스트 생산자의 주관성과 평가(evaluation)가 개입된다. 인용 보도가 기본적으로 다중적인 소통구조 속에서 매개되고, 인용문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전체’로 엮어내는 작업이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인 것이다. 인용 보도에서 주관성이나 평가는 ‘누가 인용되는가,’ ‘어떤 전달동사를 통해 기존의 텍스트가 인용되는가,’

11) “타동성”은 사건이나 행위를 언어로 표현할 때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사건의 참여자들(participants)과 주절의 동사가 어떤 형태(통사구조)로 나타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Richardson 54-55). 영어에서 타동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언어적 과정(verbal process)”에는 말하기와 관련된 행동(예, speaking, shouting, singing 등)이 해당되고, (2)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에는 감각 또는 정신 작용, 인지 과정과 관련된 행동(예, thinking, dreaming, deciding 등)이 관련되며, (3)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은 “주체와 속성”의 관계로 나타나며(흔히 “You are X” 또는 “You have Y” 등의 형태로 실현된다.), (4) “물리적 과정(material process)”은 주체의 타동성 행위로 인해 객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어떤 내용의 발화를 인용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van Dijk 128, 김용진 31-2), 인용문에 대한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와 평가는 인용문 구성에 사용된 지시어, 전달동사, 발화내용의 성격과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Wortham and Locher 563). 특히 인용 보도에서 상위문의 전달동사는 인용되는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독자에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Thompson 522, 이영희 222). 벨은 객관적/중립적 전달동사(neutral verb, 예, 말하다, 전하다, 덧붙이다)와 주관적 전달동사(evaluative verb, 예, 강조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설명하다)를 구분하고, 전달동사의 성격에 따라 인용 내용이나 인용 대상에 대한 보도자의 평가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Bell 57). 이처럼 직접 인용문을 보도하는 주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용에 개입할 수 있다.

3. CNN.com 뉴스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3.1 분석자료

본고의 분석자료는 CNN.com의 영문기사와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중앙일보의 CNN 한글기사이다.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CNN 한글뉴스 홈페이지(<http://cnn.joins.com/>)에서 2008년 4월에 게재된 전체 한글기사 중 원천텍스트인 영문기사에 직접 인용문이 등장하는 총 126개의 영문기사와 이를 번역한 총 126개의 한글 기사를 중심으로 직접 인용문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표 1> 참조).

CNN(Cable News Network, Inc.)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대 언론기업이다(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Home Page). 1980년 소규모의 24시간 뉴스 전문 유선 방송국으로 출범한 CNN은, 현재 CNN인터내셔널(CNNI), CNN+, CNN에스파냐어 방송, TBS, 터너방송국(Turner Network Television, TNT), 라틴아메리카TNT, HLN 등과 함께 모회사인 타임워너 사(Time Warner Company)에 소속되어 있다.

CNN.com은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뉴스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CNN

Worldwide)로 설립되었다. 타 문화권의 독자들을 위해 국제적인 사건을 영어로 보도하는 CNN International이 별도로 있지만, CNN 온라인 뉴스는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으로 각기 번역되어 해당 언어권의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¹²⁾

〈표 1〉 분석 기사 수(2008년 4월 기사 중 직접 인용문이 사용된 기사)

		정치	경제	과학	스포츠	문화, 연예
기사 수	영문기사	75	9	13	16	13
	한글기사	75	9	13	16	13

CNN 온라인 뉴스는 중앙일보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번역기사는 원문기사에 링크되어 버튼 클릭만으로 두 언어의 텍스트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CNN 한글 뉴스는, 인터넷 뉴스의 장점인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 “편리하다”, “특정 이슈를 계속 볼 수 있다”, “시청각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다”(cf. Pew Center 1999, 조수선 36에서 재인용)는 특징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기사와 번역기사 간의 링크를 통해 뉴스 구독과 함께 영어 학습을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외국어교육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¹³⁾

3.2 분석방법

- 12) 그로셴은 CNN과 CNN International이 서로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게재되는 기사의 주제와 내용을 분석해 보면 CNN과 CNN International 간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Groshek 61-2). 또한 CNN은 미국 언론기관의 뉴스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세계 각 지역의 언론사들로 하여금 미국 중심적인 의제 설정을 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결국 뉴스가 전세계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13) 기존 매체의 “뉴스 시청자가 인터넷 뉴스로 이동”(한국방송진흥원 2000)하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도 아직까지 웹기반 뉴스의 번역 양상에 대한 연구가 국내 번역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CNN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미디어이며 CNN 뉴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CNN 뉴스의 번역은 타 언론사의 온라인 뉴스 번역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NN.com 뉴스 번역에 대한 분석은 이런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텍스트의 번역이 재맥락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톰슨의 분석 방법을 토대로 뉴스번역에서 직접 인용문의 문제를 분석한다. 톰슨에 의하면, 인용문에 대한 연구는 인용문의 구조와 형식의 고찰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용하는” 텍스트가 “인용되는”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담화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Thompson 507). 톰슨은 남의 말을 자신의 텍스트에 도입하는 보도자가 사용 가능한 여러 표현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정 맥락에서 특정 발화가 텍스트에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유와 방식을 담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용문의 4가지 층위, 즉 “목소리(voice),” “메시지(message),” “신호(signal),” “태도(attitude)”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507). 각 층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 목소리: 누가 또는 무엇이 직접인용의 대상인가
- 메시지: 선행 발화의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는가
- 신호: 인용문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 태도: 인용의 주체는 메시지 또는 인용 대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직접 인용문을 사용한 영문기사와 이에 상응하는 한글 기사를 수집한 후 직접 인용문이 번역된 양상을 톰슨의 4가지 층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어떤 번역방법이 사용되고, 어떤 형태적, 의미적, 담화기능적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직접 인용문이란 “선행 발화를 문장 전체 또는 일부분 가져와 큰따옴표 안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앞에서 인용문의 유형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 있는 “직접 인용문”과 “전략적 인용문”이 모두 본고에서는 “직접 인용문”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선행 발화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전략적 인용문”은 주로 문장 전체를 재생하는 “직접 인용문”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 누군가가 이미 사용한 표현을 뉴스텍스트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다시 인용 및 전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후행 논의에서 “직접 인용문”이라는 표현은, 직접 인용문과 전략적 인용문을 모두 포함하는 총칭어로 사용됨을 밝혀둔다. 또한 뉴스텍스트에서 간혹 보도자가 뭔가를 강조할 때

또는 생소한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 큰따옴표 안에 넣어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의 발화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3.3 CNN 뉴스텍스트 직접 인용문 번역의 분석

3.3.1 직접 인용문의 번역방법

CNN.com 기사의 직접 인용문 번역에서 의미의 전환을 수반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번역 방법은 요약적 번역, 명시화, 구체화, 첨가, 생략, 자국어화이다. 각 번역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요약적 번역(gist translation): 원천텍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압축하거나 일부 생략하여 내용의 요지 중심으로 번역하는 방법
- 명시화(explicitation): 원천텍스트에서 생략되거나 함축적으로 전달된 내용을 더욱 명시적으로 설명하여 번역하는 방법
- 구체화(specification): 원천텍스트에서 사용된 표현보다 더욱 구체적인 지시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방법
- 첨가(addition): 원천텍스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여 번역하는 방법
- 생략(ommission): 원천텍스트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번역하는 방법
- 자국어화(domestication): 텍스트의 의미, 표현방식, 스타일이 원천텍스트를 충실하게 따르기보다는 번역어문화권의 규범을 따르는 번역방법¹⁴⁾

위에서 제시한 번역방법들은 실제 번역텍스트에서 흔히 중복되어 나타난다. 일례로 명시화는 첨가를 수반하며, 요약적 번역은 생략을 수반한다.

CNN.com 뉴스 번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번역방법은

14) 자국어화 이외에도 타국어화 번역방법이 직접 인용문 번역에서 사용되지만, 타국어화번역은 광범위하게 사용된 번역 방법이 아니라서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타국어화번역의 구체적인 예는 (10-)을 참조할 것.

“요약적 번역”과 “자국어화”이다. 특히 요약적 번역은, 인터넷 뉴스의 특성상 번역 대상이 되는 새로운 뉴스텍스트가 계속 쏟아지고, 또 기존의 뉴스텍스트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번역주체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번역 기사를 완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게 해 주는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제약은 번역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번역의 완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번역오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¹⁵⁾

3.3.2 층위별 분석

직접 인용문의 번역을 톰슨의 4가지 층위를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3.2.1 목소리

“목소리”는 누구의 말이 뉴스텍스트에서 주로 인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용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밝히는 것이 보도의 규범이며, 최근에는 목소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문에서 인용되는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f. Bell 190-1, 박재완, 이원수 440, 유일상 211, 송용희 81-5, 김용진 31-5). 일례로 글래스고 대학교 미디어 그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접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63). 본고에서는 기사에 등장하는 목소리를 번역할 때 어떤 한국어 표현이 사용되는지, 특히 인용 대상의 “지위”를 표현해야 할 경우 원문기사의 표현방식과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표현방식 중 무엇이 선택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 (ㄱ) Hospital Chief Executive Officer Rick Castrop in a statement said,

15) 일반적으로 신문 또는 시사지 번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요인이 시간 제약과 지면 제약이다(강지혜 17). 특히 지면 제약은 번역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텍스트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번역주체의 번역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번역주체는 흔히 기사 내용을 일부 요약하거나 생략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넷 뉴스 번역에서는 지면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번역주체가 원천텍스트의 내용을 취사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없어지고 있다(cf. 윤영철 193).

"we reviewed the medical and patient accounts of the patient" after she was named in a newspaper story about Clinton's stump speech.

"There is no indication that she was ever denied medical care at any time, for any reason. We clearly reject any perception that we ever denied any care to this woman."

릭 케스트롭 오블리네스메모리얼 병원 대표는 성명에서 "신문에서 관련 기사가 나온 이후 환자의 병원 진료기록을 봤다"며 "그러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케스트롭 대표는 "이 임신부가 진료거부로 숨졌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ㄴ) "We don't think it makes any sense," McCabe said. "The boy was not a drug user, the judge said so. Why would he all of a sudden take a massive dose of methadone?"

맥케이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관이 언 급했듯이 대니얼은 약물 중독자가 아닌데 그가 갑자기 메타돈을 과다 복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인용문의 번역 양상과 관련하여 (3ㄱ)과 (3ㄴ)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목소리의 번역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ㄱ)의 원문기사를 보면 첫 문단에서 제시된 목소리, 즉 "Hospital Chief Executive Officer Rick Castrop"이 둘째 문단에서는 다시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기사에서는 "릭 케스트롭 오블리네스메모리얼 병원 대표"가 두 번째 인용문에서 "케스트롭 대표"로 표현됨으로써 목소리가 또다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원문기사에서는 인용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미 독자가 알고 있기에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하지 않지만, 번역기사에서는 명시적으로 다시 언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3ㄴ)의 원문기사에서는 인용대상을 적시할 때 "McCabe"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데 비해 번역기사에서는 “맥케이브 변호사”라고 지시하고 있다. 즉 (3ㄱ)과 (3ㄴ)에서 목소리가 원문기사에서 “성명”만으로 표현된 경우에도 번역기사에서는 “성명+직위”의 형식으로 언급되고 있으며(예, Rice→라이스 국무장관, Lee→이 대통령, Biti→비티 사무총장, Keller→켈러 편집장), 이는 한국 뉴스기사에서 취재 대상을 적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다(이정복 116).

목소리 번역에서 이처럼 원문기사의 표현보다는 한국 뉴스 보도의 일반적 관행이 적용되어 지시 표현의 선택(referential choice)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목소리 번역이 자국어화를 통해 구현됨을 의미한다(cf. Kang 229). 물론 번역기사 중에는 직위가 첨가되지 않는 경우(예, McCain→매케인)나 직위만으로 지시되는 경우(예, Brown→총리)도 있고, 한 기사 내에서도 동일한 인용대상이 다양하게 번역되는 경우(예, President Bush ~ Bush ~ Bush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 부시 대통령 ~ 부시)도 발견되지만, 성명과 직위를 함께 사용하여 지시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¹⁶⁾

4. (ㄱ) North Korea's media criticized South Korea's new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since his inauguration in a blistering rebuke, warning Tuesday that Seoul's pro-U.S. policies could lead to "irrevocable catastrophic consequences."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남한 당국이 친미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파멸뿐이라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 (ㄴ) “South Korea's conservative regime is driving the north-south relations to confrontation and catastrophe, blatantly swimming against the trend of the era of independence, reunification, peace and prosperity,” an unidentified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16)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지시하는 표현의 선택(referential choice)은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정보성(informativeness),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cf. Chafe 31, Givon 111), 이정복(116)은 뉴스텍스트에서 지시어를 결정하는 데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와 권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Front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said in a statement
broadcast by state-run media in North Korea.

얼마 전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이명박 정권은 저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 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4ㄱ)와 (4ㄴ)은 북한에 대한 기사들로부터 추출한 예문들이다. 번역주체인 중앙일보나 번역독자인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관련 주제를 다룬 기사의 번역에서는, 목소리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 첨가, 생략, 요약적 번역 등의 방법을 통해 더욱 과감하게 전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ㄱ)의 경우 원문기사에서 “North Korea's media”로 언급된 목소리가 번역기사에서는 구체적인 북한의 언론 기관을 나타내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으로 전환된다. 번역과정에서 목소리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화 번역 방법이 사용된 데는, 번역주체가 기사의 주제에 대해 상세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고, 독자들이 추가적인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ㄴ)에서는 “an unidentified spokesman for the Democratic Front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 said in a statement broadcast by state-run media in North Korea”가 “북한의 조선중앙TV는 ~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로 번역되었다. 원문기사의 해당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통일민주주의전선의 확인되지 않는 대변인이 북한 국영방송에서 성명을 통해 밝혔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원문의 “an unidentified spokesman(확인되지 않는 대변인)”나 “the Democratic Front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통일민주주의전선)”은 생략된 반면, “state-run media in North Korea(북한의 국영방송)은”북한의 조선중앙TV”로 전환된 것은, 목소리의 번역과정에서 생략, 요약적 번역, 첨가, 구체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요약적 번역은 목소리의 번역에서뿐만 아니라 CNN.com 뉴스 번역 전반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장황한 기술을 피하고 명료하게 뉴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해 준다.

5. (ㄱ) "We have made difficult but necessary choices to close the projected income shortfall and put the fund's finances on a sustainable basis, but in the end it will make the fund more focused, efficient and cost-effective in serving our members," said Strauss-Kahn, a former French finance minister.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날 결정은 IMF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매우 어려웠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라 IMF는 지속적인 재정 조달에 나설 수 있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원국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ㄴ) Last November, the Illinois senator said he'd offer the former president a job “in a second.”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인 오바마는 지난해 11월 고어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도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5ㄱ)과 (5ㄴ)의 번역기사에서는 목소리에 대한 지시어 선택과 관련하여 독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ㄱ)은 IMF에 대한 기사의 일부분으로, 스트로스-칸 IMF 총재의 발언을 인용한 내용이다. (5ㄱ)에서 현 IMF 총재인 “스트로스-칸”을 지시할 때 현 직책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a former French finance minister(전 프랑스 재무장관)”이라는 과거 직책 중심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시대상을 언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영어 글쓰기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Kirk 180). 그러나 번역기사에서는 과거 직책이 아닌 현 직책 중심의 표현인 “스트로스-칸 총재”를 사용함으로써 지시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5ㄴ)에서도 유사한 번역방법을 관찰할 수 있는데, (5ㄱ)과 다른 점은 원문기사에 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라는 의미는 유지하면서 “오바마”라는 구체적인 지시어를 첨가하여 언급해 준다는 점이다. 두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시화와 첨가의 방법을 이용하여 독자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¹⁷⁾

17) 이러한 논의는 CNN.com 뉴스텍스트 번역과정에서 지시어를 결정하는 조건 중 점

이처럼 직접 인용문의 번역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첫 번째 층위인 “목소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번역된다. 원문기사에서 적시된 목소리가 번역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번역과정에서 자국어화, 구체화, (관련 정보의 일부) 생략, 첨가, 명시화, 요약적 번역을 통해 다양한 의미의 전환을 수반하며 전달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3.3.2.2 메시지

메시지는 선행 발화가 어떻게 제시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직접 인용문의 형식(유형)과 내용 중심으로 살펴본다.

6. (ㄱ) "What we want is a straightforward talk with North Korea," Lee said, according to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We want the North to come to the dialogue table with a more sincere attitude."

이 대통령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진정한 대화를 바란다”며 진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ㄴ)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denied Tuesday he had accused Sen. Barack Obama's campaign of "playing the race card" during an interview Monday.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2일 한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선거 캠프가 득표를 위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직접 인용문은 직접 인용문 형식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인용문 형식으로도 번역된다. (6ㄱ)의 “What we want is a straightforward talk with North Korea”는 “북한과의 진정한 대화를 바란다”로 번역(요약적 번역)되면서 직접 인용문이라는 형식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We want the”

근성과 정보성(informativity) 두 조건만을 두고 볼 때 정보성보다는 접근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North to come to the dialogue table with a more sincere attitude”는 “진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는 간접 인용문으로 번역될 뿐만 아니라 원문기사에 없는 “당부”라는 화행(speech act)이 첨가되어 번역되었다. 즉 원문기사에서는 큰따옴표 안에 희망사항이 주로 언급된 반면 번역에서는 명시화와 첨가를 통해 희망사항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ㄴ)에서는 “playing the race card”라는 직접 인용문(전략적 인용문)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간접 인용문으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직접 인용문이 간접 인용문으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번역 방법으로서, 특히 원문을 명료하게 번역하기 어렵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흔히 나타난다. “Playing the race card”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지명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으로, “상대 후보의 발언이나 행동이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의 사용”을 의미한다. (6ㄴ)의 번역은 번역자가 직접 인용문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원문텍스트의 의미를 명료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 인용문 형식을 통해 해석적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

7. (ㄱ) "Voters got to look at both of us, consider both of us. I was outspent three to one, and the results were just enormously exciting and gratifying to me," she added.

그는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사숙고한 끝에 후보를 결정했다”며 “경선과정은 매우 흥미로웠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 (ㄴ) "Surely the way forward is to seek that reconciliation and to facilitate that," Brown said.

총리는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모색하는 것만이 티베트 사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ㄷ) In the interview Wednesday, Richardson acknowledged he was

"very close to endorsing" Clinton, but decided not to after the campaign got "nasty."

한편 리처드슨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지지선언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클린턴 선거캠페인에 실망해 지지선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ㄷ) Rehman told CNN in February that the party wanted to look beyond "the hand that pulled the trigger" to focus on who organized and paid for the killing.

레흐만은 지난 2월 "PPP가 부토 전 총리 암살 배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7)의 예문들은 직접 인용문이라는 형식이 번역기사에서도 유지된다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인용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식과 내용은 번역과정을 통해 전환되고 있다. 즉 생략, 첨가, 명시화를 통해 번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문장 구성 형식도 전환되는 경우이다. (7ㄱ)의 “Voters got to look at both of us, consider both of us”가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사숙고한 끝에 후보를 결정했다”로 번역되면서 “~끝에 후보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이 첨가되었고, “I was outspent three to one”이라는 문장은 번역기사에서 통제로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원문기사에서는 복수의 문장이 하나의 직접 인용문으로 처리된 것이 번역기사에서는 두개의 인용문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하나의 “따옴표 안에 한 문장 이상을 쓰지 않는다”(중앙일보 23)라는 번역 규범이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다. (7ㄴ)에서는 “the way forward”와 “that reconciliation and to facilitate that”가 “티베트 사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가 대화를 통해 화해를 모색하는 것”으로 각각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첨가와 명시화를 통해 선행 맥락에서 주어진 정보를 다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7ㄷ)의 경우 원문기사에서 “nasty”라는 단어로 구성된 직접 인용문이 번역 기사에서 “그러나 클린턴 선거캠페인에 실망해 지지선언은 하지 않았다”라는 직접 인용문으로 전환되었다. 즉 원문기사에서 간접 인용으로 처리된 “지지선

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번역기사에서는 큰따옴표 안으로 들어가 리처드슨이 직접 발화한 것으로 제시되었고, 원문기사에는 없는 “실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문기사에서는 리처드슨이 “nasty(불쾌한, 험악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지지선언을 하지 않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을 뿐 “실망했다”는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번역기사에서는 “실망했다”는 표현이 첨가되어 “그러나 클린턴 선거캠페인에 실망해 지지선언은 하지 않았다”라는 직접 인용문으로 제시하면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러한 번역은 번역주체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7ㄷ)의 “the hand that pulled the trigger”이라는 명사구로 이루어진 직접 인용문이 “PPP가 부토 전 총리 암살 배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길 바라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옮겨지면서 원문기사에서는 레흐만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닌 부분(“배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길 바라고 있다”)까지 큰따옴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¹⁸⁾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번역과정에서는 첨가, 생략, 명시화 등을 통해 직접 인용문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재구성되며, 직접 인용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원문기사와 번역기사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ㄱ) Asked at a campaign event if he'd consider Gore for his cabinet, Obama immediately said he would.

선거 캠페인 도중 고어를 각료로 임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오바마는 즉시 “그렇다”고 답변했다.

(ㄴ) Speaking on CNBC, Corzine suggested it won't be enough for Clinton to argue she deserves the nomination because she has won more crucial swing states than Obama — a talking point the senator's campaign has long argued.

콜자인 뉴저지주지사는 “클린턴 의원이 오바마 의원보다 선거적

18) (7ㄷ)의 번역기사에서는 “to focus on who organized and paid for the killing”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으로 더 중요한 주에서 승리했기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CNBC 방송에서 전했다.

(8ㄱ)과 (8ㄴ)은 간접 인용문이 직접 인용문으로 전환된 예문들이다. 본고에서는 직접 인용문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분석자료는 직접 인용문을 포함하는 원문기사와 번역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분석자료 중에는 간접인용문이 번역과정을 통해 직접 인용문으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8ㄱ)에서는 한 단어가 직접 인용문으로 제시되고, (8ㄴ)에서는 한 문장 전체가 직접 인용문으로 전환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메시지의 번역은 요약적 번역, 생략, 명시화, 첨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문기사의 직접 인용문은 직접 인용문뿐만 아니라 간접 인용문으로도 번역되고, 반대로 간접인용문은 직접 인용문으로도 번역되며, 특히 직접 인용문의 형식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직접 인용의 대상이 되는 표현이나 내용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3.2.3 신호

신호는 메시지가 표현되는 구조와 관계가 있다(Thompson 518). 특히 인용문이 실현되는 단위가 구인가, 절인가, 문장인가의 문제, 인용문이 내포된 상위 문은 어떤 구조인가의 문제 등 인용을 표지하는 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으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9. (ㄱ) "Let me tell you something. When it comes to finishing the fight, Rocky and I have a lot in common. I never quit," she said.

클린턴은 “로키와 나는 싸움을 끝내야 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그것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ㄴ) "So, you who lead FARC, you now have a date with history," Sarkozy warned. "Don't miss it. Liberate Ingrid Betancourt and those hostages who are the weakest!" Not doing so, he said,

"would be a severe political error, in addition to being a humanitarian tragedy. It would be a crime. You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a woman."

사르코지 대통령은 “FARC를 이끄는 지도자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며 “베탕쿠르와 건강이 좋지 않은 인질들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또 “만약 몸이 허약한 피랍자들을 풀어주지 않아 그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비극이다”며 “희생자들의 모든 책임은 FARC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ㄷ) He said "bin Laden is healthy and well," the transcript said, but that even if he "doesn't become ill, he must die one day."

Al-Jazeera broadcast an audiotape last month on which a voice identified as bin Laden's declared "Iraq is the perfect base to set up the jihad to liberate Palestine."

또한 그는 빈 라덴의 건강 악화설에 대해 “빈 라덴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달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성전을 준비하는 본거지”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의 주인공이 빈 라덴임을 확인해 줬다.

(9ㄱ)의 경우 원문기사에서는 한 문단 내에 복수의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인용문이 번역기사에서는 한 문장(또는 복합명사구)으로 구성된 여러 인용문으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번역기사에서는 문단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처리되고 있긴 하나, 인용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보면 문장 또는 명사구가 각각 하나씩으로만 구성된, 복수의 인용문으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다. (9ㄴ)에서는 ‘단일 문단, 복수 인용문’이 ‘복수 문단, 복수 인용문’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9ㄷ)에서는 원문기사에서는 ‘복수 문단, 복수 인용문’이 번역기사에서는 ‘단일 문단, 복수 인용문’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 인용문이 제시되는 문법 형식과 구조, 문단 처리 방법은 번역과정을 통해 다양

하게 전환되고 있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번역기사의 직접 인용문은 하나의 문장으로만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10. (ㄱ) But Bush critics, especially in the right wing of the Republican Party, claim that the president is lowering the bar for the nation he once included in his "axis of evil."

그러나 공화당의 강경주의자들은 부시가 임기가 끝나기 전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한 때 ‘악의 축’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ㄴ) After a weekend of playing defense about his "bitter" comments, Sen. Barack Obama went on offense Monday against his Democratic rival and the presumptive Republican nominee.

미국의 생산직 근로자층에 대해 “bitter”(쓰라린, 비통한, 냉소적인)라는 표현을 썼다가 곤경에 처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14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라이벌과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자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10ㄱ)의 경우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한 단어, 구 등이 번역기사에서는 작은따옴표로 처리된 예문이다. 원문기사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2002년에 처음 사용한 “axis of evil”이라는 표현을 큰따옴표 안에 넣어 사용한 것은, 논란이 되는 이 표현에 대해 기자나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기사에서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원문기사와 달리 특정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책임 문제를 번역주체가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는 “악의 축”이라는 표현이 북한에 대한 부시 대통령과 미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오히려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강조할 정도의 표현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0ㄴ)의 원문기사에서 직접 인용된 영어 표현을 번역기사에서는 작은따옴표 안에 원문 그대로 넣고, 그 의미를 한국어로 소괄호 안에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방법은 문제가 된 “bitter”이라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한국독

자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국어화 번역 방법이 주를 이루는 뉴스번역에서 이처럼 원문 표현을 그대로 제시하는 타국어화 (foreignization)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원문 표현의 의미와 느낌을 충실하게 전달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번역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신호”의 번역은 직접 인용문의 구조와 인용문이 포함되는 단위(문장, 문단 등)의 전환을 수반함을 볼 수 있었다. 즉 원문기사의 직접 인용문에서는 큰따옴표 안에 복수의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번역기사에서는 따옴표 안에 한 문장 이상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번역주체의 번역규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인용문이 단일 문단으로 구성된 직접 인용문이 번역기사에서는 복수의 문단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번역 과정을 통해 복수의 문장으로 처리된 하나의 직접 인용문이 한 문장으로만 처리된 복수의 직접 인용문으로 전환되는 것은, 직접 인용되는 각각의 문장에 대해 독자의 신선을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번역주체가 각 인용문을 자신이 의도하는 상위문 구조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3.3.2.4 태도

직접 인용문을 보도하는 사람은 인용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직접 인용문에 반영함으로써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도자의 태도나 평가는 가장 일반적으로 상위문의 동사를 통해서 드러난다(Bell 206-7; 김용진 25-6). 뉴스텍스트의 인용문은 다른 이의 발화를 전달한다는 기능 때문에 보도자가 인용 과정에서 주로 “말하다,” “묻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등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는데, “말하다,” “전하다,” “덧붙이다” 등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전달동사로, “강조하다,” “설명하다,” “지적하다,” “비난하다” 등은 평가의 의미가 내포된 주관적 전달동사로 간주한다(Thompson 522, 이영희 222-6).

11. (ㄱ) North Korea's media criticized South Korea's new president for the first time since his inauguration in a blistering rebuke, warning Tuesday that Seoul's pro-U.S. policies could lead to

"irrevocable catastrophic consequences."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남한 당국이 친미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파멸뿐이라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ㄴ) "It's just hard to get questions and have a lot of interaction," Obama said of the arena-style events that are more akin to rock concerts than political events.

오바마는 경기장에서 펼치는 유세는 정치적인 행사보다는 록 콘서트에 가깝다며 “이런 곳에서는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ㄷ) "Let me tell you something. When it comes to finishing the fight, Rocky and I have a lot in common. I never quit," she said.

클린턴은 “로키와 나는 싸움을 끝내야 할 때 한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그것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ㄹ) “I will make a commitment that Al Gore will be at the table and play a central part in us figuring out how we solve this [climate change] problem,” Obama said.

오바마는 “당선되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어를 요직에 기용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인용문의 번역과정에서 전달동사의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도 많지만 중립적 전달동사가 주관적 전달동사로 전환되거나, 전달동사에 내포된 태도의 강도가 전환되는 예들도 발견된다. (11ㄱ)에서는 “criticized”가 “강도 높게 비난했다”로 전환됨으로써 전달동사에 반영된 주관적 태도가 번역과정을 통해 더욱 강하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1ㄴ), (11ㄷ), (11ㄹ)에서는 “said”라

는 중립적 전달동사가 “설명했다,” “지적했다,” “강조했다”라는 주관적 전달동사로 전환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번역주체에 의한 전달동사의 선택은, 원문기사에 나타나지 않은 보도자의 “태도”가 번역기사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번역과정을 통해 직접 인용문의 의미와 내용, 형식과 기능이 전환되고, 동시에 다른 태도를 전달하는 전달동사가 번역기사에서 사용됨으로써, 번역기사의 직접 인용문은 원문기사에 비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CNN.com의 원문기사와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직접 인용문이 번역되는 양상을 연구하였다. 톰슨이 직접 인용문 분석의 층위로 제시한 바 있는 “목소리,” “메시지,” “신호,” “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인용문의 번역에 사용되는 번역 방법을 비롯하여 직접 인용문의 번역이 수반하는 형태적, 의미적, 담화기능적 전환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소리”의 번역에서는 원문기사에서 명시된 목소리가 번역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요약적 번역, 구체화, 생략, 첨가, 명시화, 자국어화 등의 번역 방법을 통해 목소리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형태적, 의미적 전환을 수반하며 전달된다. 특히 원문기사의 의미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한국 언론 보도의 규범에 상응하면서 가독성과 인용 대상에 대한 번역독자의 접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시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메시지”의 번역에서는 요약적 번역, 생략, 명시화, 첨가 등 다양한 번역방법을 통해 직접인용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 의미가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문기사의 직접 인용문은 직접 인용문뿐만 아니라 간접 인용문으로도 번역되고, 반대로 간접인용문은 직접 인용문으로도 번역되고 있다. 간접 인용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번역 주체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인용문의 형식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의미의 전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신호”의 경우 번역과정에서 직접 인용문의 구조와 단위(문장, 문단

등)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원문기사의 직접 인용문은 큰따옴표 안에 복수의 문장을 넣어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번역기사에서는 큰따옴표 안에 한 문장 이상을 쓰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하나의 인용문이 단일 문단으로 처리된 원문기사도 번역과정을 통해 복수의 문단으로 재구성되기도 했다. 단일 문장으로 처리된 다수의 직접 인용문은 독자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키는 동시에 각각의 인용문을 번역주체가 의도하는 상위문 구조 속에 쓸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번역주체의 개입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넷째, “태도”는 상위문의 동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직접 인용문에 사용되는 전달동사가 번역되면서 원문기사와 다른 평가를 번역기사에서 전달하게 되는 경우를 관찰하였다. 즉 중립적인 전달동사인 “said,” “added” 등이 “강조했다,” “지적했다” 등의 주관적 전달동사로 전환되면서 번역기사에서는 보도자의 평가가 더욱 강도 높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뉴스번역이 추구하는 목적은 원문기사를 가독성 높은 언어로 최대한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통해 뉴스텍스트의 직접 인용문 번역은, 원문기사를 새로운 언어로 전환하는 언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통 상황, 목적, 독자들을 위해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CNN.com 직접 인용문의 번역에서 관찰된 의미, 형식, 담화기능의 전환은, 번역기사에 대한 가독성과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사의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토대로 정보성을 조절하는 번역주체의 개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요약적 번역 그리고 자국어화 번역이 가장 주된 번역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인용의 번역에서 기존의 발화/텍스트와의 관계성보다는 번역이 수행되는 상황 그리고 번역텍스트가 수용되는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보여준다.

본고는 CNN.com의 뉴스텍스트 직접 인용문 번역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기에 본 논의의 결과가 뉴스번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번역 주체별, 매체별로 더욱 확대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8.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4.
- 김용진. 2003. 「신문 뉴스 인용문의 담화 기능: 미국 신문의 9-11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1(2): 19-42.
- 김정남. 2005. 「신문 기사 인용문의 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47: 277-90.
- 남기심. 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방학지』 12: 223-33.
- 박재완, 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6): 439-511.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3): 80-104.
- 양명희. 2004. 「라고라고라고라」. 『새국어소식』 2004년 9월호, 5-6.
- 유일상. 2002. 「인용(Quotation)과 사실성의 구현」. 『관훈저널』 43(1)(통권 제 82호, 봄호): 210-18.
- 윤영철. 2001.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7호: 182-213.
- 이영희. 2008. 「뉴욕타임스 인용 보도 방식의 변천: 전달동사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6(1): 191-227.
- 이정복. 1997. 「방송언어의 가리킴말에 나타난 힘과 거리」. 『사회언어학』 5(2): 87-124.
- 이필영. 1993. 현대국어의 인용구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창덕. 1999. 「현대 국어 인용 체계 연구」. 『텍스트언어학』 6: 255-99.
- 조수선. 2003. 『다매체 환경과 뉴스 수용자의 미래』. 서울: 미디어연구소.
- 중앙일보. 1997.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 서울: 중앙일보.
- 한국방송진흥원. 2000. 「인터넷 뉴스의 대약진 속에 뉴스의 시청 패턴 변화」. 『한국방송진흥원동행과 분석』 121.
- Bahktin, Mikhail.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ker, Mona. 2006. "Contextualization in Translator- and Interpreter- Mediated Events." *Journal of Pragmatics* 38(3): 321-37.
- Banfield, Anne. 1973. "Narrative Style and the Grammar of Direct and Indirect Speech." *Foundations of Language* 10: 1-39.
- Barnard, Christopher. 2000. "The Tokaimura Nuclear Accident in Japanese Newsweek: Translation or Censorship?" *Japanese Studies* 20: 281-94.
- Baynham, Mike and Stef Slembrouck. 1999. "Speech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al Discourse." *Text* 19.4: 439-57.
- Bell, Allan. 1991. *The Language of the News Media*. Oxford: Blackwell.
- Bielsa, Esperan a and Susan Bassne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uttny, Richard. 1997. "Reported Speech in Talking Race on Campu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3(4): 477 - 506.
- Chafe, Wallace.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NY : Academic Press, 25-55.
- Clark, Herbert H. and Richard J. Gerrig. 1990. "Quotations as Demonstrations." *Language* 66: 764-805.
- Comrie, Bernard. 1986. "Tense in Indirect Speech." *Folia Linguistica* 20: 265-96.
- CNN Worldwide. 2007. 1 May 2008. <<http://www.cnnasiapacific.com/factsheets/?catID=10>>.
- Fairclough, Norma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Fairclough, Norma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Fludernik, Monika. 1993. *The Fictions of Language and the Languages of Fiction: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peech and Consciousness*. London: Routledge.
- Fujii, Akio. 1988. "News Translation in Japan." *Meta* XXXIII(1): 32-7.

- Givon, Talmy. 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0. *More Bad News*. London: Routledge.
- Groshek, Jacob. 2008. "Homogenous Agendas, Disparate Frames: CNN and CNN International. Coverage Onlin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52(1): 52-68.
- Gutt, Ernst-August.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2nd 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Holt, Elizabeth. 1999. "Just Gassing: An Analysis of Direct Reported Speech in a Conversation between Employees of a Gas Supply Company." *Text* 19(4): 505 - 37.
- Kang, Ji-Hae.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Translation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The Translator* 13(2): 219-242.
- Kirk, Sung Hee. 2004. "Contrastive Analysis of Cohesive Devices in English Source, Korean Target and Comparable Korean Texts."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5(2): 163-84.
- Leech, Geoffrey and Michael Short. 1981. *Style in Fiction*. London: Longman.
- McHale, Brian. 1978. "Free Indirect Discourse: A Survey of Recent Accounts." *Poetics and Theory of Literature* 3: 235 - 87.
- Mossop, Brian. 1987. "Who is addressing us when we read a translation?" *TextconText* 2: 1-22.
- Myers, Greg. 1999. "Unspoken Speech: Hypothetical Reported Discourse and the Rhetoric of Everyday Talk." *Text* 19(4): 571-90.
- Ravotas, Doris and Carol Berkenkotter. 1998. "Voices in the Text: The Uses of Reported Speech in a Psychotherapist's Notes and Initial Assessments." *Text* 18(2): 211 - 39.
- Richardson, John E. 2007. *Analyzing Newspapers: An Approach fro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New York: Palgrave.
- Rich, Carole. 1999. *Writing and Reporting News: A Coaching Method*, 4th ed.

- Belmont: Wadsworth.
- Slembrouck, Stef. 1999. "Translation, Direct Quotation and Decontextualization."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7(1): 81-108.
- Thompson, Geoff. 1996. "Voices in the Text: Discourse Perspectives on Language Reports." *Applied Linguistics* 17, 501-30.
-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2008. 15 Sep. 2008. <http://www.turner.com/about/corporate_history.html>.
- van Dijk, Teun.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ERA.
- Voloshinov, Valentin. 1986[1929].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rtham, Stanton and Michael Locher. 1996. "Voicing on the News." *Text* 16: 557-85.

[Abstract]

Speech Representation in News Translation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ranslation of speech representation in news by comparatively analyzing how direct speech in CNN.com news articles is translated. Starting from a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speech and translation, the study explores the parallel processes of recontextualization in both direct speech and translation. Then by drawing on Thompson's discussion of the four dimensions of choice for the reporter, namely "voice," "message," "signal," and "attitude," an analysis is carried out of direct speech in CNN.com news article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form, meaning, and discourse function of direct speech is shifted as a result of the translation process.

By using such translation methods as gist translation, explicitation, specification, omission, addition, and domestication, the meaning and message of direct speech is transferred in the target text to ensure readability, accessibility and informativity for the target readers. In the target text, direct speech is transferred into direct or indirect speech and indirect speech is changed into direct speech. Other formal, semantic, or functional shifts include the transformation of partial quotation into full sentential quotation, the transfer of sentential quotation into partial quotation, different paragraph divisions in representing direct speech, changes in the reporter's evaluation of the reported message as a result of the shift in the use of the reporting verb. The findings suggest that translation of direct speech in news discourse involves complex processes of reformulating the anterior text in terms of the context in which it is relayed.

▶ Key Words: headline, institutional translation, news discourse, ideology, North Korea

강지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교수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적 번역, 미디어 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